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 은 수¹⁾ · 서 영 숙²⁾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Do, Eun Su¹⁾ · Seo, Young Sook²⁾

¹⁾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ongbuk Science College

²⁾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ju University,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clinical competence and factors related to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210 students in three different schools located in D, B and P metropolitan cities, Korea. Data were using PASW (SPSS) 18.0 program, and included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s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linical competence and ego-resilience ($r=.40$, $p<.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r=.58$, $p<.001$), and self-leadership ($r=.14$, $p=.043$). Variables such a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ego-resilienc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education, health status and academic performance explained 48% of variance in clinical competence. **Conclusion:**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a specific education program for clinical competence of student nurses is needed to increas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ego-resilienc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education, health status and academic performance.

Key words : Clinical competence, Resilience, Leadership, Nursing Students

주요어 : 임상수행 능력, 자아탄력성, 리더십, 간호대학생

1)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 경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처자 E-mail: seo1657@naver.com)

접수일: 2014년 5월 7일 1차 수정일: 2014년 6월 13일 2차 수정일: 2014년 7월 16일 3차 수정일: 2014년 7월 26일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18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eo, Young Sook

Department of Nursing, Gyeongju University

780-712, Taejong-ro 188, Gyeongju-si, Gyeongsangbuk-do, Korea.

Tel: 82-54-770-5322 FAX: 82-54-770-5322 E-mal: seo1657@naver.com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발달, 소비자 권리의식 변화 등의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간호사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Ko et al., 2013). 특히 간호학은 인간중심의 실용학문으로, 임상실무에 필요한 간호기술과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의 간호수행능력은 간호교육의 중요성과 지표이다(Ko et al., 2013; Park et al., 2012). 이에 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인증평가의 틀로 제시하였으며, 이로써 전문직간호사로서의 임상수행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우선, 역량은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인성이나 태도, 자질 등의 총체적인 특성이 다(Ha & Choi, 2010; Ko et al., 2013). 또한 임상수행 능력은 특정간호 실무에서 간호대상자의 요구에 대한 자신의 충분한 지식과 기술, 태도, 판단 등의 역량을 조합하여 바람직한 간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Campbell & Mackay, 2001; Ko et al., 2013). 이러한 관점에서, 임상수행 능력은 임상수행 능력이 좋을수록 간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므로(Campbell & Mackay, 2001), 숙련된 임상수행 능력이 간호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Shin, Lee, & Lim, 2010). 이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 능력 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Hur & Roh, 2013).

특히,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 능력은 이론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체를 다양한 임상사례를 통해 재구성되므로, 임상실습이 임상수행 능력의 향상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Lee & Park, 2013). 그러나 임상현장에서의 간호학 임상실습은 실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습을 하는데 있어 제약이 따르며(Shin, Shim, & Lee, 2013), 이로 인해 직접적인 간호중재를 적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관찰위주의 교육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임상수행 능력을 함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Chang, 2011; Shin & Cho, 2012; Shin et al., 2013; Park et al., 2012). 이에 간호교육계에서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 능력을 위한 다양한 교육전략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별교과목이나 암환자 임상수행 능력, 리더십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Ko et al., 2013)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상수행 능력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실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적용하고 분석, 종합 및 추론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시에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

에(Kwon et al., 2006; Facione, Facione, & Sanchez, 1994), 임상수행 능력의 중요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내적동기부여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인 힘으로(Manz & Sims, 2001), 셀프리더십이 높은 사람은 임상수행을 하면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게 된다(DiLiello & Houghton, 2006). 또한 셀프리더십은 내적특질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Yang & Moon, 2011). 한편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Jang & Kwag, 2013), 이에 셀프리더십은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자신의 내적문제와 외적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능력으로(Block & Kremen, 1996), 간호학 교육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전공교육과 실습교육의 학습적응에 영향을 미친다(Park, 2009).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임상적응과 임상수행 능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Lee & Park, 2013) 볼 수 있으며, 특히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성격적 및 행동적 요소 등 다차원적 개념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 긍정적인 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Block & Kremen, 1996; Park et al., 2012) 임상수행 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수행 능력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론교육 만족도와 실습교육 만족도(Blackman, Hall, & Darmawan, 2007; Jang & Kwag, 2013; Shin & Cho, 2012), 전문직자아개념(Memarian, Salsali, Vanaki, Ahmadi, & Hajizadeh, 2007; Shin & Cho, 2012) 등의 전공학 관련요인, 비판적 사고성향(Facione et al., 1994; Jang & Kwag, 2013; Kwon et al., 2006; Memarian et al., 2007; Park et al., 2012; Shin & Cho, 2012), 셀프리더십(Park et al., 2012), 자아탄력성(Lee & Park, 2013), 자아효능감(Park et al., 2012) 등의 정서적 요인을 보고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실습교육 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Shin & Cho, 2012; Yang & Moon, 2011).

이들 대부분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 관련 특성, 정서적 요인을 단면적으로 다룬 연구들이며,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요인으로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에 초점을 두고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전공관련 특성, 정서적 변인과 임상수행 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 변인이 임상수행 능력을 설명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을 설명하는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

행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 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 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 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임상수행 능력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D시, B시와 P시에 소재하는 3개교의 간호대학에서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4학년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중간(effect size=.15), 요인 통계적 검정력 .95로 예측변인 10개로 산정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72명 이상이 요구되었으며, 불충분한 응답수와 회수율을 고려하여 240명을 편의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14년 01월 10일부터 02월 28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과 절차, 연구 참여자의 권리, 연구 참여의 자율성 및 비밀보장에 대하여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연구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설문지는 총 21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들 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8부를 제외한 총 210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

● 임상수행 능력

임상수행 능력은 특정 간호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과

기술을 유연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Barrett & Myrick, 1998), 본 연구에서는 Lee 등(199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 9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과 전문직 발전 9문항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자신 없다' 1점에서 '매우 자신 있다' 5점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46점에서 최고 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95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98이었다.

●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조직구성원 자신이 스스로를 관리하고 통제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의미하며(Manz, 1983), 본 연구에서는 Manz (1983)가 개발한 도구를 Kim (2002)이 번안하고 우리나라 에 적합하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기대 3문항, 리허설 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상 3문항, 자기비판 3문항과 건설적 사고 3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18점에서 최고 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2)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89였다.

●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주어진 문제해결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중요히 여기고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적 성향을 의미하며(Facione et al., 1994), 본 연구에서는 Yoon (200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적 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과 객관성 3문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n (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4,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내적문제와 외적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과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으로 문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Block & Kremen, 1996), 본 연구에서는 Block과 Kremen (1996)이 개발한 한 도구를 Yoo와 Shim (2002)이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인관계 3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 통제 2문항, 활력 2문항, 낙관성 2문항의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14점에서 최고 5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7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 일반적 특성과 전공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Jang & Kwag, 2013; Kim, 2012; Lee & Park, 2013; Park et al., 2012; Shin & Cho, 2012; Yang & Moon, 2011)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연령, 성별, 학년,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교과 외 활동을 포함하였다. 전공 관련 특성은 선행연구(Blackman et al., 2007; Jang & Kwag, 2013; Shin & Cho, 2012)에서 이론교육 만족도와 실습교육 만족도, 학업성취도, 간호학과 지원동기와 졸업 후 계획을 포함하였으며, 학업성취도는 4.0이상은 '상', 3.0~3.9는 '중'과 2.0~2.9는 '하'로 측정하였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적성, 졸업 후 취업, 교교성적, 간호사의 좋은 이미지와 기타로 측정하였다. 졸업 후 계획은 병원간호사와 학교간호사, 지역사회간호사, 산업간호사, 해외취업, 기타로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 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Tukey'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 능력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임상수행 능력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여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전공 관련 특성과 임상수행 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9세이었고, 여학생이 85.2%이었으며, 3학년이 78.6%, 종교는 없는 대상자가 거의 반수를 차지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68.1%, 교과 외 활동은 '소극적이다'가 38.5%, 이론교육의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2%, 실습교육의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44.8%, 학업성취도는 '중'이 63.3%, 간호학과 지

원동기는 '고등학교 성적' 33.8%, 졸업 후 진로는 '병원 취업'이 67.1% 이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 능력은 성별($t=5.30, p=.022$)과 학년($t=5.38, p=0.21$), 주관적 건강상태($F=11.08, p=.001$), 교과 외 활동($F=6.58,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른 각 변인의 결과는 성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년은 4학년이 3학년 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나쁘다'보다, 교과 외 활동은 '적극적이다'가 '소극적이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상수행 능력이 높았다.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 능력은 이론교육 만족도($F=7.31, p<.001$)와 실습교육 만족도($F=1.65, p=.027$), 학업성취도($F=3.93, p=.02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른 각 변인의 사후검정 결과는 이론교육 만족도와 실습교육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불만이다' 보다, 학업성취도는 '상'이 '하'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상수행 능력이 높았다(Table 1).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 능력의 정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56점 중 39.68점, 비판적 사고성향은 90점 중 65.37점, 셀프리더십은 90점 중 62.22점 이었으며, 임상수행 능력은 225점 중 149.8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 능력 간의 관계

대상자의 임상수행 능력은 자아탄력성($r=.40, p<.001$), 비판적 사고성향($r=.58, p<.001$) 및 셀프리더십($r=.14, p=.043$)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아탄력성은 비판적 사고성향($r=.21, p=.002$), 셀프리더십($r=.14, p=.037$)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셀프리더십($r=.15, p=.033$)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Table 3).

대상자의 임상수행 능력 영향요인

대상자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80이상인 변수가 없어 변수들 간의 독립성이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가 0.89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교과 외 활동과 전공 관련

Table 1. Differences in Clinical Competenci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0)

Variables	Categories	N (%)	Clinical competencies		
			Mean±SD	F/t (ρ)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ear)	22.94±2.74			
		>25	180 (85.7)	149.62±18.74	0.19
		≤25	30 (14.3)	151.23±18.95	(.664)
	Gender	Male	31 (14.8)	142.77±17.34	5.30
		Female	179 (85.2)	151.08±18.74	(.022)
	Year	3rd	165 (78.6)	148.30±18.62	5.38
		4th	45 (21.4)	155.53±18.24	(.021)
	Religion	Yes	92 (43.8)	150.73±19.01	0.59
		No	118 (56.2)	148.73±18.42	(.444)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a)}	14 (6.7)	146.93±13.00	11.08
Moderato ^{b)}		143 (68.1)	153.71±19.22	(.001)	
Poor ^{c)}		53 (25.2)	140.23±14.92	b>c	
Extracurricular activity	Good ^{a)}	63 (30.5)	155.80±17.40	6.58	
	Moderato ^{b)}	65 (31.5)	150.29±19.75	(.002)	
	Poor ^{c)}	81 (38.5)	144.78±17.61	a>c	
Nursing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with theoretical education	Satisfied ^{a)}	88 (42.0)	154.32±17.15	7.31
		Moderate ^{b)}	82 (39.0)	149.33±22.18	(.001)
		Dissatisfied ^{c)}	40 (19.0)	141.10±8.92	a>c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education	Satisfied ^{a)}	87 (41.4)	153.72±16.65	1.65
		Moderate ^{b)}	94 (44.8)	147.98±17.45	(.027)
		Dissatisfied ^{c)}	29 (13.8)	144.38±25.84	a>c
	Academic performance	High ^{a)}	34 (16.2)	156.74±18.26	3.93
		Middle ^{b)}	133 (63.3)	149.71±17.26	(.021)
		Low ^{c)}	43 (20.5)	144.86±22.14	a>c
	Application motivation	Aptitude	12 (5.7)	158.08±13.45	
		Recommendation of others	60 (28.6)	151.48±18.384	
		Employment guarantee	58 (27.6)	149.78±21.91	0.85
		High school record	71 (33.8)	147.68±17.66	(.517)
		Nurse's good image	2 (1.0)	149.00±0.00	
		Others	7 (3.3)	144.71±11.16	
	Plans for after graduation	Hospital	141 (67.1)	149.16±18.60	
School		10 (4.8)	165.50±21.20		
Community		20 (9.5)	152.30±17.10	1.80	
Occupational		19 (9.0)	147.89±17.31	(.115)	
Abroad		13 (6.2)	144.38±23.57		
Others		7 (3.3)	149.86±5.27		

† Tukey-test

Table 2. Levels of Clinical Competencies,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Self-leadership (N=210)

Variables	Mean±SD	Observed range	Potential range
Clinical competencies	149.85±18.74	94-206	46-225
Ego-resilience	39.68±6.76	21-53	14-56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65.37±6.05	46-88	18-90
Self-leadership	62.22±7.28	48-78	18-90

특성 중에서는 이론교육 만족도, 실습교육 만족도, 학업성취도로 유의한 상관변인을 선택하였으며, 각 명목변수는 0과 1의 값만을 갖는 이항변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와 교과 외 활동은 '적극적이다', 이론교육 만족도와 실습교육 만족도는 '만족한다', 학업성취도는 '상'을

기준으로 각각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전공 관련 특성,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탄력성, 셀프리더십 변인을 투입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beta=.44$, $p<.001$)과 자아탄력성($\beta=.24$, $p<.001$), 실습교육 만족도($\beta=.20$, $p<.001$), 주관적 건강상태($\beta=.13$, $p=.022$)와 학업성취도(β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tudy Variables

(N=210)

Variables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Self-leadership
	r (p)	r (p)	r (p)
Clinical competencies	.40 (.001)	.58 (.001)	.14 (.043)
Ego-resilience		.21 (.002)	.14 (.037)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15 (.033)

Table 4. Predictors of Clinical Competencies (N=210)

Variables	Model		
	β	t (p)	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44	8.03	<.001
Ego-resilience	.24	4.55	<.00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education	.20	3.75	<.001
Perceived health status*	.13	2.31	.022
Academic performance*	.12	2.64	.009
R ²	.48		
Adj. R ²	.48		
F (p)	14.60 (<.001)		

*Dummy Coded: Perceived health status (Moderate=d0, Low=d1); Academic performance (High=d0, Middle=d1).

=.12, p=.009)이었으며, 임상수행 능력에 대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48%였다(F=14.60, p<.001).

논 의

간호교육의 패러다임은 보건의료계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임상실무를 비롯한 수요자로부터 간호사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제고를 요청받아 왔다(Ko et al., 2013). 특히 임상수행 능력은 간호교육의 중요 지표로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전문직 간호사의 능력수준을 평가하는 주요요인이므로(Park et al., 2012),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 관련변인을 알아 보고 확인된 영향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 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4학년이 3학년 보다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나쁘다 보다 높았고, 교과 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차이가 있었다. 우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임상수행 능력이 높은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임상수행 능력이 높게 보고된 Kim (2012)의 결과와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임상수행 능력의 차이가 없다는(Jang & Kwag, 2013) 결과와는 상이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선행연구(Lee & Park, 2013; Park et al., 2012)의

결과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는 학년별 교육과정의 단계적인 진행의 결과로 보여진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는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좋은 학생이 건강상태가 나쁜 학생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Yang & Moon, 2011)와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수행 능력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결과(Jang & Kwag, 2013)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이는 양호한 건강상태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임상수행 능력을 높게 작용하는데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과 외 활동에 따른 차이는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이 나쁜 학생보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보고된 결과(Yang & Moon, 2011)와 맥락을 같이한다. 교과 외 활동은 정규교과 과정에서 부족한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데, 이를 대인관계로 볼 수 있다. 특히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모임은 협동심과 배려심, 책임감, 자신감 등을 함양할 수 있다. 한편 간호는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하면서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으로, 교과 외 활동을 통해 길러진 사회성과 리더십 등은 임상수행 능력에 기여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은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와 교과 외 활동이 추가되었으나 이 또한 추후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론교육 만족도와 실습교육 만족도, 학업성취도에 따른 임상수행 능력의 차이는 선행연구(Blackman et al., 2007; Jang & Kwag, 2013; Lee & Park, 2013; Shin & Cho, 2012; Yang & Moon, 2011)의 결과와 일관된다. 이론교육 만족도와 실습교육 만족도, 학업성취도는 전공교육 만족도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임상수행 능력은 전공교육 만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수행 능력은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과 양의 상관관이 있었으며, 이는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이 높은 경우에서 임상수행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탄력성, 실습교육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학업성취도이었으며, 이들 변인은

임상수행 능력을 48% 설명하였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여러 선행연구(Memarian et al., 2007; Park et al., 2012; Shin & Cho, 2012)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 능력과 높은 순상관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많은 간호대학생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고하였다(Park et al., 2012).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비판적 사고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Memarian et al., 2007; Park et al., 2012), 이는 간호학 교육목표 중에 하나인 비판적 사고능력(Ko et al., 2013)을 육성하는 간호교육과정의 성과로 사료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상황을 분석하고 추론하여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성향(Kwon et al., 2006)이 함양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전략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주요변인은 자아탄력성이었으며, 이는 Lee와 Park (2013)의 결과와 일치한다. 높은 자아탄력성은 간호상황의 내외적문제에 노출되더라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Tugade & Fredricson, 2004). 이는 임상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같은 자아개념은 행위의 동기를 결정하고 행동방향을 결정짓는데, 궁극적인 능력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Park, 2009). 이에 간호학문은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적응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학습적응의 어려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대처하게 되므로(Lee & Park, 2013), 이는 임상수행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상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과내외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임상수행 능력에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등(2012)의 결과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DiLiello & Houghton, 2006; Javadi, Rezaee, & Salehzadeh, 2013)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대학생활의 학년과 임상간호사의 임상경험에 따른 차이로 보여지며, 본 연구는 3학년이 78.6%인 반면 Park 등(2012)은 3학년이 29.4%로 학년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셀프리더십에서는 두 연구의 결과가 상이하므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셀프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때 직무몰입과 직무수행능력의 주요요인(DiLiello & Houghton, 2006)으로 보

고된 결과와 간호조직의 팀 구축의 요인(Javadi et al., 2013)으로 강조됨을 고려해 볼 때 간호교육에서 셀프리더십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선천적인 자질보다는 후천적인 학습과 경험으로 셀프리더십이 개발되므로(Manz & Sims, 2001),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반복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탄력성, 실습교육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학업성취도 등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은 실습교육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학업성취도에 따라 임상수행 능력이 달라지므로 일반적 요인과 전공관련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전공관련 특성, 정서적 요인의 변인만 설명하였으나 교수학습법과 교과과정 등의 기타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일부 도시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조사하였으므로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탄력성, 실습교육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학업성취도 등으로 임상수행 능력을 48%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실습교육을 만족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학업성취도가 좋을수록 임상수행 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

- Barrett, C., & Myrick, F. (1998).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 364-371.
- Blackman, I., Hall, M., & Darmawan, I. G. N. (2007).

- Undergraduate nurse variables that predict academic achievement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International Education Journal*, 8, 222-236.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Campbell, B., & Mackay, G. (2001). Continuing competence: An Ontario Nursing Regulatory Program that supports nurses and employers.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25(2), 22-30.
- Chang, S. K.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 71-78.
- DiLiello, T. C., & Houghton, J. D. (2006). Maximizing organizational leadership capacity for the future: Toward a model of self-leadership, innovation and creativity.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 319-337.
- Facione, N. C., Facione, P. A., & Sanchez, C. Z. (199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s a measure of competent clinical judgement: The development of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3, 345-350.
- Ha, N. S., & Choi, J. (2010). An analysis of nursing competency affecting on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 286-294.
- Hur, H. K., & Roh, Y. S. (2013). Effects of a simulation based clinical reasoning practice program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 574-584. <http://dx.doi.org/10.7475/kjan.2013.25.5.574>
- Jang, H. J., & Kwag, Y. K. (2013).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 4380-4387.
- Javadi, M. H. M., Rezaee, M. S., & Salehzadeh, R. (2013).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strategies and job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in Accounting, Finance and Management Sciences*, 3, 284-289. <http://dx.doi.org/10.6007/IJARAFMS/v3-i3-178>
- Kim, H. S.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Kim, J. S. (2012).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7, 94-102.
- Ko, J. K., Chung, M. S., Choe, M. A., Park, Y. I., Bang, K. S., Kim, J. A., et al. (2013). Modeling of nursing competencies for competency-based curriculum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 87-96.
-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Public hearing on the accreditation of nursing: Strategies for the accreditation of nursing in 2012*. Seoul: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 Kwon, I. S., Lee, G. E., Kim, G. D., Kim, Y. H., Park, K. M., Park, H. S., et al. (2006). Development of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 950-958.
- Lee, E. K., & Park, J. A. (2013). Ego-resilience and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 293-303.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2.293>
- Lee, W. H., Kim, J. G., Yoo, J. S., Hau, H. K., Kim, K. S., & Yim, S. M. (1990). A study on instrument development of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Yonsei Nursing*, 13, 17-29.
- Manz, C. C. (1983).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Manz, C. C., & Sims, H. P. (2001). *The new super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San Francisco, CA: Berrett-Koehler Publishers Inc.
- Memarian, R., Salsali, M., Vanaki, Z., Ahmadi, F., & Hajizadeh, E. (2007). Professional ethics as an important factor i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Nursing Ethics*, 14, 203-214. <http://dx.doi.org/doi:10.1177/0969733007073715>
- Park, J. W., Kim, C. J., Kim, Y. S., Yoo, M. S., Yoo, H. R., Chae, S. M., et al. (2012). Impa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efficacy, and 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ine Education*, 24, 223-231. <http://dx.doi.org/10.3946/kjme.2012.24.3.223>
- Park, W. J. (2009).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learning styles, and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240-250.
- Shin, Y. W., Lee, H. J., & Lim, Y. J. (2010). Predictors of the clinical competence in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 37-47.
- Shin, H. S., Shim, K. K., & Lee, Y. N. (2013). Nursing activities identified through pediatric nursing simulatio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9, 111-119. <http://dx.doi.org/10.4094/chnr.2013.19.2.111>
- Shin, K. A., & Cho, B. H. (2012).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 46-56.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1.046>
- Tugade, M. M., & Fredrickson, B. L.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320-333.
- Yang, N. Y., & Moon, S. Y. (2011).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 216-225.
- Yoo, S. K., & Shim, H. W. (2002).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16, 189-206.
Yoon, J.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